



미성년 성폭력 사건의 문제점과 대책

신 의 진*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Professional opinions on the social service systems required for coping with and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in Korea

Yee-Jin Shi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Yee-Jin Shin, E-mail: hopegene@korea.kr

Received October 13, 2010 Accepted October 26, 2010

Abstract

In Korea, concerns over child sexual abuse have been rising recently because of the fatal consequences for victims and the fact that the incidence has continued to increase even after the government's efforts to intensify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While the angry and painful responses of many Koreans to recent incidents of child sexual abuse, such as the Jo Doo Soon case, are intense enough to lead to the government's urgent reactions to resolve it, few systematic, comprehensive approaches to coping with and preventing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developed. To establish efficient systems for coping with and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well trained experts such as physicians,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and social service systems to train these professionals as well as institutions to provide appropriate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are essential. However, the current systems supporting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such as the Sunflower Children's Center, One-stop Center, and other counseling centers, are not well coordinated and lack knowledgeable professionals. Furthermore, since there is no responsible government department to integrate the social welfare and legal systems for child sexual abuse, services are inefficient and decentralized. Thus to cope with and prevent child sexual abuse in Korea, we need to establish good, efficient social service systems to train experts, to coordinate each organizations, to integrate child sexual abuse treatment and prevention into the general child welfare system, and to establish enough service centers to provide all legal, medical, welfare, and other services required.

Keywords: Sexual abus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ervice system; Prevention

서 론

우리사회에는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범행 양태의 무자비성과 폭력성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격앙된 감정 반응에 비해 지속적이고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마련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조두순 사건, 포항 은지 사건, 영동포 초등학생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책은 주로 가해자를 빨리 검거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특히 일명 화학적 거세법, 전자발찌법, 가해자 신상공개 강화 등의 가해자 처벌 관련 법안은 신속히 만들 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피해 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치료·재활하는 부분, 이차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진술을 가능하게 하여 법적 증거로 남기는 부분, 근친상관의 경우 피해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 등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은 턱 없이 부족하다.

미성년 성폭력의 관리와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를 위한 전문적 기술, 외상성 기억을 재구성하여 제대로 된 진술 증거를 확보하는 발달인지과학적 접근, 물리적 증거 확보를 위한 검진 및 DNA 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는 전문적 연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학 조사 등 의학적 전문성이 없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도와줄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미성년 성폭력 사건에 전문적 도움을 주는 의사는 많지 않다. 산부인과, 정신과, 외과, 비뇨기과, 소아과,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현신과 지식이 필요한데 불과 수년전까지는 피해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본 시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과 현재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본 론

1. 미성년 성폭력 피해, 무엇이 문제인가?

미성년 성폭력은 우선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아동·청소년이 주된 대상이 되며 주로 친척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50% 이상이며, 따라서 즉시 밟고보다는 사건이 지나고 한참 뒤에 알려져

물리적 증거확보가 어렵고,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생기는 가족 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등 아동 인권의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이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상상을 초월 한다. 신체적 손상과 관련 장애도 크지만, 장기적인 정신적 문제와 사회적응의 어려움은 “영혼의 파괴자(Soul Murder)”라도 불릴 만큼 심각하다. 어린이성 폭력 치료전담 기관인 서울 해바라기 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센터를 방문한 피해 어린이의 약 68%가 초기에 정신과 질환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해 어린이와 가족은 적절한 치료 없이는 평생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현 법률과 제도에 의하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는 여성가족부의 주관 하에 지원되고, 가해자는 경·검찰, 법무부에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크게 보호와 처벌의 두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처음 여성가족부에서 연세의료원으로 위탁하여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세워졌고 이후 2005년 경북의대, 전남의대 부속 병원 위탁의 영남, 전남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세워졌고 2010년 현재 전국에 총 10개의 해바라기 아동 센터가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13세 이하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평가, 치료, 재활, 법적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됨으로 인해 그동안 진료와 의사진료소견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 한편,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부터 보호된 환경에서 진술 및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 원스톱 센터를 전국 종합병원 응급실에 16개가 운용되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반복진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 검찰청에 진술 녹화실을 만들어 한번 영상녹화 한 자료를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활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용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처벌 수위도 높아져 미성년 성폭력 가해

자의 경우 형량이 증가하고 음주감경이 되지 않으며 전자발찌법, 화학적 거세법, 치료보호법 등 재벌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우리 사회에 미성년 성폭력 관리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상기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미성년 성폭력은 더욱 증가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첫째, 미성년 성폭력 피해 지원을 미성년의 전반적 복지 시스템과 별도로 성평등적 시각으로 성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던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복지 문제와 맞닿아 있는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성평등적 시각에서 다룬다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아동학대와 함께 뮤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와 복지를 통합한 체계 하에서 다루고 있다. 즉 미성년 성폭력 피해 지원은 전반적 어린이 복지의 틀 속에서 보호하고 회복시킨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나 우리 사회는 성폭력 이란 좁은 틀 속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실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현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성폭력 사건 수사 및 가해자 처벌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법무부 체계에는 범죄자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면이 몹시 부족하다. 또한 소아정신의학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진술조사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참여와 적극적 의견개진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현 시스템에서는 전문가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미성년 성폭력 사건의 해결의 시발점부터 혼들려 제대로 기초조차 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이차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장기적 안목의 대책이 없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부서가 없다. 현재 피해 보호는 여성가족부가, 수사 및 법적 처벌은 검찰 및 법무부가,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은 거의 빠

져있는 상태이다 보니,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 잠시 관심을 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관리 역시 미성년 성폭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단순히 나이 어린 가해자로 처벌에 교육적 측면을 첨가하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는 것 역시 통합적 시각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관련 전문가가 몹시 부족하다. 심지어 어린이 성폭력 피해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가 중 제대로 관련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몹시 소수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스템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의사 뿐 아니라 임상심리사, 상담사, 검사 및 경찰 등 어린이 성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된 제도와 노력이 없이는 결국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어린이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복지와 의료를 결합한 큰 틀 속에서 다루어 지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차 피해를 줄이고 전문적 수사와 재판을 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범죄피해자 구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 또한 필요하다.

-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예방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정부에 마련해야 한다. 현재 피해 지원과 가해자 처벌 및 수사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부서가 없으면 미성년 성폭력 사건은 결코 제대로 관리되어 질 수 없다.

- 어린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들을 돋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성평등 문제 등 사회문화적 측면도 해결에서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전문

가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적 연구와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결 론

한국의 전반적 복지 수준의 기준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복지 분야 중 가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성년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제대로 활용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담당하는 통합부서를 정부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선진국처럼 미성년 성폭력 문제를 아동학대의 개념에서 분리하지 말고 전반적인 아동복지 향상이라는 틀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핵심용어: 성폭력; 아동과 청소년; 사회제도; 예방